

미·러 제네바 담판, 푸틴 속내에 달렸다

협상? 침공 명분쌓기? 촉각

미 “돌파구 기대 안해”...탐색 주력 러 “어떤 양보에도 동의없다”

미국과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에 나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카자흐스탄 시위 격화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을 협상에 한층 험로가 예상된다.

일단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대표로 나서는 제네바 협상에서 눈에 띄는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東進)을 구속력 있는 문서로 약속해달라는 러시아의 안전보장안 요구가 회담의 주된 의제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협상 요구에 응하면서도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회담을 하루 앞둔 9일 방송 인터뷰

를 통해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기대 수위를 낮췄다.

미국의 관심은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쏠려있다. 정말로 협상에 뜻이 있어 서방에 안전보장안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명분 쌓기용 전술인지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제네바에서 러시아 측이 나토 동진 금지 법적 보장 같은 요구가 가망 없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조하는지 아니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배치 문제와 군사훈련 상호 제한을 의제로 올리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가 상호적 약속을 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도 회담 직전 미국을 몰아세우며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를 분명히 했다. 라브로프 외무차관은 9일 “어떤 양보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이 단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러시아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13일 오

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의 연쇄 회담을 예정하고 있으나 전체적 회담의 향방을 결정짓는 건 미·러 제네바 회담일 수밖에 없다.

미 정부 당국자는 WP에 러시아가 미국과의 회담을 중요시한다면 “그들은 나머지는 장식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담을 앞두고 격화한 카자흐스탄 시위 사태는 가뜰이나 불투명한 미·러 협상에 암운을 드리우는 또 다른 변수다. 연료비 폭등이 촉발한 대규모 시위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 조약기구(CSTO) 평화유지군을 끌어들이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7일 회견에서 “일단 러시아가 집에 들어오면 떠나게 하기가 가끔 몹시 어렵다”며 카자흐스탄에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지난달 화상과 전화로 두 차례 회담했지만, 가시적인 긴장 완화의 계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접경에 병력을 증강하며 침공 우려를 키웠으며 미국과 유럽은 국제결제망 퇴출과 수출제한 등 초강력 조치를 검토하며 엄청난 대가를 경고해왔다. /연합뉴스



중국이 내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인 가운데 9일 베이징 인근 텐진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위해 한 어린이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 관문 텐진 코로나 확산에 초긴장

7~9일 40명 양성 판정

당국 “베이징으로 출근말라”

중국이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 베이징의 관문인 텐진(天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방역 당국은 확진자 일부가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의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함께 베이징으로 통하는 길목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강력한 방역 정책을 가동하고 나섰다.

10일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텐진시에서는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3명에서 크게 불어난 것이다. 위건위는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추가 진단 과정을 거쳐 최종 확진자를 분류하고 무증상 감염자는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텐진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에서 140km 가량 떨어진 도시로, 고속철도를 타면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텐진지역 직장인 30%가 베이징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림픽 개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산시성 시안과 허난성 정저우 등에 이어 베이징의 턱밑까지 코로나19 확산한 것이다.

텐진은 1500만명을 넘는 주민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벌이는 데 이어 추가 방역 조치를 내렸다. 텐진을 벗어나려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한 뒤 지역사회에 심사를 받도록 했다.

방역 당국은 “주관하는 사람이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이나 지역사회가 심사해야 한다며 “각급 당정 기관, 기업 등이 앞장서서 불필요한 이동을 통제하라”고 주문했다. 베이징으로 통하는 길목은 사실상 차단됐다. 철도역, 터미널, 고속도로에 방역 요원을 배치해 이동하는 사람들의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와 스마트폰 앱의 건강코드를 확인하도록 했다.

10일 텐진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139편의 열차 가운데 84편의 열차표 판매가 중단됐다고 신빙성은 전했다. /연합뉴스

“미·일, 중국 겨냥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

요미우리 “현대판 코콤 가능성”

미국과 일본이 부상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첨단기술 수출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현재 조율 중이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 양자 암호, 인공지능(AI) 등에 관한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일 양국은 뜻을 같이하는 유럽 국가와 함께 다자 수출규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시야에 넣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미 인권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감시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의사를 표명한 바 있지만, 이번에 검토하는 규제는 별도의 틀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미일 정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제품

등을 자국의 기술 개발에 활용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가 중국의 무기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도 수출한 반도체 제조 장비가 중국의 생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요미우리는 새 수출규제 제도가 현대판 ‘코콤’(COCOM,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방 국가들은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1949년 전략 물품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코콤을 설립한 바 있다.

코콤은 동구권 봉기로 동서 냉전이 끝남에 따라 1994년 해산했다. /연합뉴스

뉴욕 저소득층 아파트 큰불

어린이 9명 등 19명 사망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미국 뉴욕시의 한 아파트에서 큰불이 나 19명이 사망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NBC 뉴욕 등에 따르면 일요일인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뉴욕시 브롱크스의 19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후 1시까지 2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불길을 잡았으나, 최소 32명의 중상자를 비롯해 모두 6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세 이하 아이들 9명을 포함한 19명이 숨졌다고 뉴욕시가 밝혔다. 2~3층의 한 복층 아파트에서 시작된 화재로 건물 높이만큼 연기가 치솟고, 창문 밖으로 화염이 번지기도 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특히 유독가스가 많이 퍼지는 바람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들은 거의 모든 층에서 부상자를 발견했으며, 이 중 다수는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였다고 뉴욕시 소방국은 밝혔다. 다니얼 니그로 뉴욕시 소방국장은 “이 건물 전체에 걸쳐 많은 사람이 갇혀 있었다”며 “전례 없이 많은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맨 처음 불이 난 아파트 문이 열려있었던 바람에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퍼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니그로 국장은 “불은 고장 난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화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모두 120가구 규모로, 주로 노동자 계층이 사는 곳이라고 NYT가 보도했다. 피해 주민들은 평소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작동해 이날도 처음에는 가짜 경보가 울린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롱크스의 19층짜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치솟는 연기 속에서 생존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욕시 당국은 이번 화재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19명이 숨지고 6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